

# 행정구역 분리가 지역의 인구와 산업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을 사례로

신영재\*

## A Study on the Effect of Administrative Districts Separation to the Changes of Population and Industry in a Region: A Case Study on Goesan-gun and Jeungpyeong-gun, Chungcheongbuk-Do

Yeong-Jae Shin\*

**요약 :**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은 2003년에 행정구역이 분리되었다. 괴산군은 농촌, 증평군은 도시 지역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구역이 분리된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의 변화를 인구와 최고지가, 산업별 종사자와 입지 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괴산군의 인구는 감소, 증평군의 인구는 증가하였고, 최고지가의 상승률은 증평군이 더 높다. 2013년 기준으로 입지 계수를 보면, 증평군은 제조업과 생산자 관련 서비스업, 괴산군은 농업과 광업,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괴산군과 증평군의 지역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요어 :** 행정구역 분리, 인구, 최고지가, 종사자, 입지 계수

**Abstract :** Goesan-gun and Jeungpyeong-gun, Chungcheongbuk-Do have been separated administratively since 2003. Goesan-gun is rural area, and Jeungpyeong-gun is urban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changes after the separ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Goesan-gun and Jeungpyeong-gun, Chungcheongbuk-Do). This study observed changes of Goesan-gun and Jeungpyeong-gun, Chungcheongbuk-Do based on population, the highest land value, employees and location quotient. Population of Goesan-gun has decreased, and that of Jeungpyeong-gun has increased. The highest land value of Jeungpyeong-gun has increased more than that of Goesan-gun. Observation of location quotient, with the location quotient of 2013 as a criterion, showed that manufacturing business and producer service business have developed in Jeungpyeong-gun, while agriculture and customer service business have developed in Goesan-gun. This result is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regional characteristic of Goesan-gun and Jeungpyeong-gun.

**Key Words :** separ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population, land value, employees, location quotient

---

\* 잠신고등학교 교사(Teacher, Jamsin High School), syj7161@hanmail.net

## 1. 서론

### 1) 연구 목적 및 방법

지역의 변화를 다루는 것은 지리학의 주요 연구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인간의 주요 활동 무대인 지역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Chisholm, 1990). 따라서 지역의 환경이 변하게 되면, 지역의 경제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등 변하게 된다.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은 원래 같은 행정구역인 괴산군이었다. 그러나 1990년 12월 31일부터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로 독립 운영되면서 괴산군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증평 지역의 주민과 시민단체,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2003년 8월 30일에 괴산군에서 증평군이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었다. 행정구역의 분리로 인해 증평군에서는 환영을, 괴산군에서는 우려<sup>1)</sup>가 제기되었다.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리적 또는 지역적 범위(손재식, 1991, 92)이며,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국토 공간을 구분한 지리상의 경계로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설정하였다(김안제, 1979, 559). 따라서 행정구역은 전통성과 역사성, 생활권, 지역 공동체 의식 등을 전제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증평 지역에서는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 증평읍과 도안면을 증평군으로 분리하였다. 증평군이 분리되어 규모나 경제적인 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 정부는 지역의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기업가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방 정부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잠재력을 찾아내야 한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주민 및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보다는 지역과 같은 소규모 공간 단위가 중요한 경제 단위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지역의 상대적 중요성을 부각시켜 경쟁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을 신지역주의로 부르기도 한다. 신지역주의

의 등장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포드주의에서 포스트 포드주의로 전환되면서 지역의 경제적 부활을, 정치적 측면에서는 중앙집권에서 분권을 지향하는 지역의 정치적 부활을 의미한다(김용웅 등, 2003, 66-67). 세계화에 따른 신지역주의 경향은 각 국가 및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Swyngedouw, 1992).

행정구역이 분리 되면서 괴산군과 증평군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괴산군은 행정구역·인구·예산 등에서 축소가 이루어져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대로 증평군은 별도의 독립된 행정을 펼친 증평출장소로 운영되어 행정권은 충청북도에, 지방자치권은 괴산군에 있었던 관계로 지역 개발 등 지역을 위한 예산이 적어 지방자치의 사각지대로 불리어 왔다. 이에 따라 증평군으로 분리되면서 행정권 및 지방자치권이 생겼기 때문에 지역 개발을 위한 예산 집행이 편리해졌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두 지역은 행정구역의 분리로 지역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지역 개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괴산군과 증평군은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변하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정주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정구역 변화로 인해 이루어진 지역 변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본 연구는 행정구역 분리 이후의 지역 변화에 대한 사례 연구로, 괴산군과 증평군의 인구, 지가, 산업 구조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을 행정구역이 분리된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으로 한정하고, 연구 방법으로 문헌 연구와 통계처리방법을 사용하였다. 변화를 살펴보는 지표로는 토지 이용 변화, 인구, 지가, 산업별 종사자이고, 산업별·지역별 특화 정도는 지리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지수중의 하나인 P. S. Florence가 만든 입지 계수(Location Quotient)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의 기준년도와 비교년도는 증평군으로 분리된 해인 2003년과 2014년, 지

가는 2004년과 2015년, 산업별 종사자는 2004년과 2013년의 통계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의 통계연보와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였다.

## 2) 연구 지역

우리나라 중앙부에 위치한 괴산군과 증평군은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과 2시간 이내에 연계가 가능한 지역이다(그림 1). 괴산군 면적은 842.4km<sup>2</sup>으로 1읍 10개면<sup>2)</sup>, 증평군은 괴산군의 1/10 정도인 81.8km<sup>2</sup>로 구리시(33.3km<sup>2</sup>), 계룡시(60.7km<sup>2</sup>), 울릉군(72.9km<sup>2</sup>) 이어 네 번째로 좁은 지역이며 1읍 1면(증평읍과 도안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괴산군은 70% 이상이 임야이고, 평균 해발고도는 약 250m로 산지가 많고 평야가 적어 농산물 생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풍부하지 못하다. 또한 논보다는 밭이 많으며, 고추와 고춧가루, 찰옥수수는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어 있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괴산군의 특산물이고, 화양계곡, 선유동 계곡, 쌍곡 계곡, 산막이 옛길 등은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들이 다(괴산군 홈페이지).

괴산군의 2004년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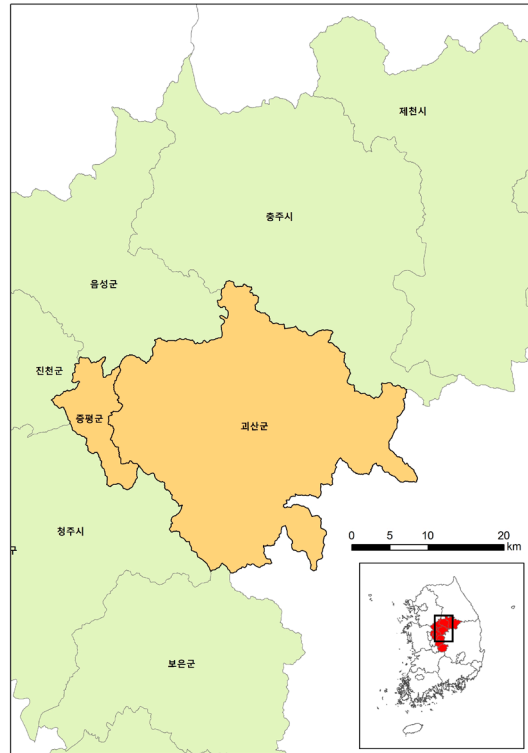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지역

밭, 논, 과수원 등의 농지가 17.3%, 임야가 74.8%로, 임야와 농지를 합하면 92.1%이다. 반면에 개발된 지

표 1. 괴산군의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 변화

(단위: km<sup>2</sup>, %)

구분	계	밭	논	임야	과수원	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기타	
2004년	계	842.4	78.4	65.5	630.0	1.5	10.1	1.4	0.8	12.8	41.9
	구성비	100	9.3	7.8	74.8	0.2	1.2	0.2	0.0	1.5	5.0
2014년	계	842.4	75.1	60.4	625.0	2.4	11.5	2.2	1.1	20.0	44.7
	구성비	100	8.9	7.2	74.2	0.2	1.4	0.3	0.1	2.4	5.3

자료: 괴산군 통계 연보(2004; 2014)

표 2. 증평군의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 변화

(단위: km<sup>2</sup>, %)

구분	계	밭	논	임야	과수원	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기타	
2004년	계	81.8	10.4	15.4	41.3	0.3	3.5	0.4	0.3	2.8	7.4
	구성비	100	12.7	18.8	50.5	0.4	4.3	0.5	0.4	3.4	9.0
2014년	계	81.8	9.8	14.1	40.5	0.3	4.1	1.3	0.5	3.4	7.8
	구성비	100	12.0	17.2	49.5	0.4	5.0	1.6	0.6	4.2	9.5

자료: 괴산군 통계 연보(2004; 2014)

역은 2.9%로 대지 1.2%, 공장용지 0.2%, 도로 1.5%이다. 2014년의 농지는 16.3%이고, 임야까지 합치면 90.5%로 1.6%만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 대지 1.4%, 공장용지 0.3%, 학교 용지 0.1%, 도로는 2.4%, 기타는 5.3%이다. 가장 많이 늘어난 토지 이용은 도로로 2004년에 비해 0.9%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표 1). 따라서 2004년 대비 괴산군은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증평군은 37사단과 공수여단이 위치한 군사도시로, 인삼과 홍삼으로 유명하며, 태양광 산업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증평군의 2004년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논과 밭, 과수원 등 농지는 31.9%로 괴산군보다 많고, 임야는 50.5%로 적으며, 임야와 농지를 합치면 82.4%이다. 반면에 개발된 토지는 8.6%로 괴산군보다 많으며, 대지 4.3%, 공장용지 0.5%, 학교 용지 0.4%, 도로 3.4%이다. 2014년 농지 29.6%이고, 임야까지 합치면 79.1%로 3.3%가 다른 용도로 바뀌어, 괴산군보다 많이 바뀌었다. 대지는 5.0%로 0.7%, 공장용지는 1.6%로 1.1%, 학교 용지 0.6%, 도로 4.2%로 0.8%, 기타는 9.5%로 0.5% 증가하였다. 2004년에 비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공장 용지로 2004년에 비해 1.1% 증가하여 증평군에 공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따라서 증평군은 괴산군에 비해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연구 동향

### 1) 행정구역의 개편

행정구역의 개편과 관련된 연구는 지리학, 행정학,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 방법에는 편입, 통합, 분리 등이 있다. 행정구역은 주민 참여와 편리성, 행정의 능률성, 재정적 자주성, 정치·행정적 측면과 지역의 생활권, 지역 공동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개편해야 한다(정세욱, 1995, 751-753). 임석희(1994)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체계는 현재 주민의 실질적 공간체

계와 다르기 때문에 중심도시와 배후지의 통합, 생활권의 계층 체계와 행정 계층의 일치, 생활권의 범위와 행정구역의 일치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Smith(1995)에 따르면 행정구역의 개편은 기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갈등의 산물이다. 행정구역의 규모면에서 Tiebout(1965)와 Oates(1972)는 규모가 작아야 효율적이라 보았고, Alonso(1975)는 규모의 경제론 차원에서 지역의 규모가 커야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우리나라 역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부분적인 성과 밖에 거두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보면, 지방자치가 새로이 시작된 1995년 이전에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외국 사례와 관련 이론 소개가 주를 이루었고, 1995년 이후에는 행정구역의 개편 방향과 체계의 문제점, 행정구역 규모의 적정성, 통합의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통합 찬성론자(박희정, 1994; 박종관, 1999; 홍준현, 2005)와 행정구역 분리 찬성론자(이규환, 1994; 최준호, 2001; 김석태·이영조, 2004)로 나누어졌다.

1995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는 통합 성과여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시·군 통합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본 연구(김재홍, 2000; 박종관·조석주, 2001)와 통합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본 연구(김동훈·정진현, 1996; 경기개발연구원, 1997; 김대원, 1999; 배인명, 2000; 이시원·민병익, 2005) 그리고 통합 효과를 양비론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연구(홍준현, 1997; 최재승, 1999; 최홍석·정재진, 2005)들이 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한 공간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신영재(1999)는 평택시를 사례로 한 평택시의 주민의 활동 공간이 과거의 평택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고, 손승호(2013)는 대도시권과의 거리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르며, 통합된 지역 내에서도 도시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농촌지역은 인구가 감소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신영재(2013)는 통합시인 평택시의 사례에서 지역에 따라서 농촌인 군 지역에서 공업 단지 등이 건설되면서 도시 지역보다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았다.

## 2) 지역의 변화

지역 간에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격차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나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역 간에 성장의 격차가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과 내재적 요인들의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이 변화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 있다. 지역 변화와 관련된 연구에서 보면, 먼저 이벤트 사업의 유치로 인한 지역의 경제나 환경이 변하는 정도에 대한 연구이다. 특별 이벤트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는 호주의 에들레이드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대회에 관한 연구(Burns *et al.*, 1986)가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였고,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올림픽, 월드컵, 세계 박람회 같은 이벤트는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Long and Perdue, 1990; Cromption and Makay, 1994; Cromption, 1995; Dwyer *et al.*, 2004; 2005; Getz, 2005; Tyrrell and Johnston, 2001; Warnick *et al.*, 201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은 편이다. 2002년 월드컵 효과와 관련된 연구(이충기, 2003; Horne and Manzenreiter, 2004; Kim, Gursay, and Lee, 2006)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된 연구(이정록 등, 2015)가 있다.

다음은 지역에 새로운 시설 입지나 환경 변화로 인해 지역이 변하는 경우이다. 산업 시설의 입지는 지역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산업 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연구로는 제철소 입지로 인한 지역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정록, 2000; 유성중, 2000)가 있다. 정성호(2006)는 1989년 이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에 의해 폐광조치 된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변화와 개발 현황에 대한 연구에서 석탄 산업이 사양화되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인구의 외부 유출이 급증하여 지역 전체가 공동화되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신영재(2013)는 평택항 개항에 따른 배후 지역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평택항에 가까울수록 인구와 산업별 종사자의 증가율은 높았으나, 지가 상승률의 차이

는 크지 않았다고 보았다. 신용철(2014)은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사례 연구에서 시멘트 공업 발달에 따른 고용 및 인구분포 변화, 공장 건설로 인한 환경 변화, 충주댐 건설로 인한 공간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지역 변화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지역의 환경이 변화된 괴산군과 증평군의 행정구역 분리의 배경을 토대로 두 지역의 인구와 산업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괴산군과 증평군의 행정구역 분리

### 1) 행정구역 분리 이유

행정구역은 국가에 의해 인위적, 계획적으로 설정된 형식지역이지만, 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하천, 호수, 산맥 등 주로 자연·지리적 조건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설정하였지만, 일제강점기에 식민 통치의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따라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많이 생겼다.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은 지리적 환경이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편하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있다.

괴산군과 증평군의 분리 이유를 보면, 먼저, 괴산군과 증평군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통합되어 정체성과 동질성이 다르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시행된 행정구역 개편에서 괴산군은 연풍군, 괴산군, 청안군 등 3개의 군과 청주군 및 충주군 관할의 일부 지역을 합쳐서 만들었다. 이 당시 증평 지역은 청안군에 속해 있었으며,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괴산군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증평군 주민들은 괴산군과 역사적 뿌리가 달라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했다. 두 번째는 지리적 조건으로, 예로부터 괴산군은 한강 유역, 증평군은 금강 유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달랐다(그림 2). 괴산군은 충주와 같은 한강 유역으로 충주를 생활권으로, 증평군은 금강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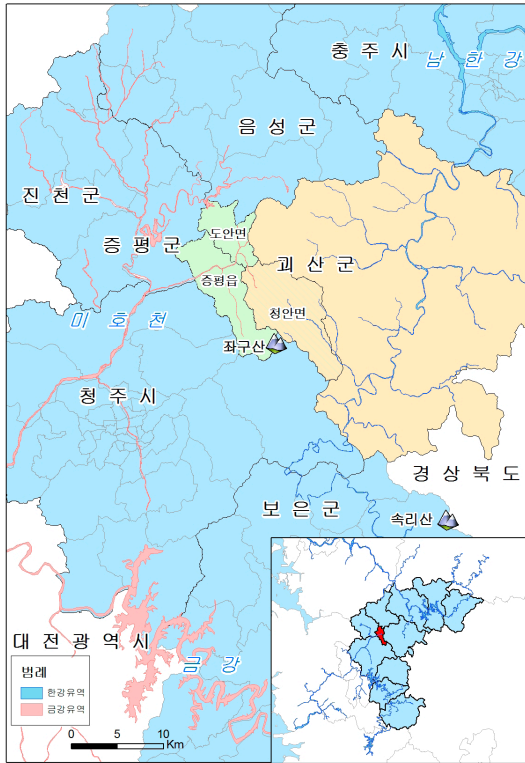


그림 2. 증평군과 괴산군의 하천 유역

역으로 청주를 큰 생활권으로 하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역사적 뿌리, 정체성, 동질성, 생활권이 다른 증평 지역이 괴산군에 속해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세 번째는 증평 지역의 증평출장소 설치 운영 때문이다. 괴산군에 속해 있던 증평 지역에 1990년 12월 31일 증평출장소<sup>3)</sup>가 설치 운영되었다. 증평출장소 지역의 행정권은 충청북도에, 지방자치권은 괴산군에 있었기 때문에, 증평 지역 주민들은 증평 지역에 행정권한이 없는 괴산군수와 지방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증평 지역 주민들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절름발이 지방선거에 불출마 및 참정권 포기를 결의하는 등 지방 선거 때만 되면 선거 회의론이 일어났다.

결론적으로 괴산군과 증평군은 다른 역사적 뿌리와 지리적 조건, 생활권이 다르고 증평출장소 체제로의 운영에 의한 자치권 행사의 무의미 등의 이유가 행

정구역 분리 이유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행정구역 분리 운동은 증평 지역에서 시작하였다.

## 2) 증평 지역의 행정구역 분리 과정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이 분리된 지 10년이 넘었다. 증평군이 괴산군에서 분리된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증평군 설치운동 태동기(1963~1989년)이다. 1963년 1월 증평지역에서는 증평군 신설을 전제로 행정구역 개편 운동을 시작하였다(충청일보, 1963년 1월 24일). 이때 증평군 행정구역으로 구상했던 지역은 증평을 실생활권으로 하는 증평읍과 도안면 7개 리, 사리면 8개 리, 청안면 11개 리 진천군 초평면 11개리, 청원군 북이면 28개리, 음성군 원남면 1개리 등 7개 읍·면, 78개리에 면적은 311.26km<sup>2</sup>으로, 현재의 증평군 면적보다 4배나 넓다. 이 당시 행정구역 개편 여론조사 결과 95.4%의 찬성을 보였지만, 정부의 반대로 실패하였고, 1967년에도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했지만 실패하였다(증평군 설치 백서). 1970, 80년대에는 증평군 분리·독립 운동은 중단되었다가, 1989년 충청북도에에서 증평시 승격에 따른 추진계획서의 작성·보고 지시가 내려오면서 행정구역 개편 운동이 다시 시작되었다. 증평시 행정구역을 괴산군 사리면과 청안면, 청원군 북이면 일부와 진천군 초평면 일부 지역으로 설정하였고, 이들 지역의 인구가 시 승격 인구 기준인 5만을 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괴산군에서 ‘증평시 설치 계획서’를 작성해 충청북도에 보고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증평 지역에서는 행정구역 분리·독립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체제하에서의 특정시 추진 시기(1990~1998년)이다. 1990년 12월 31일 증평군 설치의 단초가 된 충청북도 증평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91년 2월 1일에 증평출장소가 개청되면서 시 승격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 당시 증평 지역 주민들의 시 승격을 주장한 이유는 1991년 당시 증평읍의 인구(31,339명)가 충북도내 12개 읍 중 인구가 가장 많았고, 대다수 주민들이 출장소 출범이 시 승격

전 단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괴산군과 생활권역과 정서가 다르며, 증평출장소의 행정권은 충청북도에, 지방 자치권은 괴산군에 있는 관계로, 지방선거의 무의미 등이다(증평군 설치백서). 이 당시 증평시 추진의 최대 걸림돌은 인구 기준이었다. 1991년 시 승격 기준인 5만 명에 19,000여 명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증평을 실생활권으로 하는 주변지역 편입을 추진하였다. 1998년 10월 증평출장소와 계룡출장소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특정시 추진 입법안을 발의하였지만,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면서 실패하였다.

마지막으로, 증평군으로의 추진 방향 전환 및 설치(1999~2003년)이다. 이때 괴산군에서는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와 인구 부족 등의 문제로 증평시 추진이 어려워지자 괴산군으로의 환원을 주장하였고, 증평출장소 폐지 가능성과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지역에 증평출장소를 흡수하는 방안 검토 방안이 내려왔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증평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증평군으로 방향을 전환하였고, 증평군 설립 촉구 범주민 결의 대회와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증평 주민들은 괴산군으로의 환원은 절대 반대이고, 증평을 생활권으로 하는 지역을 증평군으로 신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국회, 충청북도, 각 정당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탄원서를 전달하였다.

증평시민단체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권이 없는 괴산군수와 지방의원 참정권 포기 선언을 하였으며, 2002년 대선후보자에게 충청북도의 시민 단체와 연계하여 '증평군 독립 자치단체 실현'을 충북의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충청북도의 대선 공약으

로 확정하였다. 2002년 4월에 증평과 계룡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역 인사들은 '증평군과 계룡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였다. 괴산군에서는 증평군 설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 2003년 4월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 행자위 통과,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되었고, 2003년 4월 30일에 법률안이 가결되어 선포되었다(증평군 설치백서). 증평군 분리·독립의 역사지리적 의미는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괴산군으로 편입된 행정구역을 생활권 기준으로 되돌린 것이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지역 정치인, 시민단체, 주민들의 노력을 통해 의원 입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행정구역이 분리되면서 괴산군에서는 인구 및 면적의 감소로 예산이 감소되었으며, 증평군에서는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증평군은 증평출장소 체제로 운영되었을 때는 예산의 규모도 작았고,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했다. 또한 증평군으로 독립되면서 군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복지 시설 설치로 공무원 증원이 이루어졌고, 새로이 시작하는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등 빠른 변화가 나타났다.

#### 4. 괴산군과 증평군의 인구 및 지가 변화

##### 1) 인구 변화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대도시와 가까운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

표 3. 괴산군의 인구 및 성별·연령별 인구 변화

구분	2003년			2014년		
	남(명, %)	여(명, %)	계(명, %)	남(명, %)	여(명, %)	계(명, %)
0~14세	2,652(13.0)	2,434(12.2)	5,086(12.6)	1,528(7.8)	1,506(8.0)	3,034(7.9)
15~64세	14,300(69.9)	12,375(62.0)	26,675(66.0)	13,305(68.3)	10,841(57.5)	24,146(63.0)
65세 이상	3,496(17.1)	5,154(25.8)	8,650(21.4)	4,655(23.9)	6,516(34.5)	11,171(29.1)
계	20,448(50.6)	19,963(49.4)	40,411	19,488(50.8)	18,863(49.2)	38,351

자료: 괴산군 통계 연보(2004년), 2014년 인구는 괴산군 홈페이지(2014.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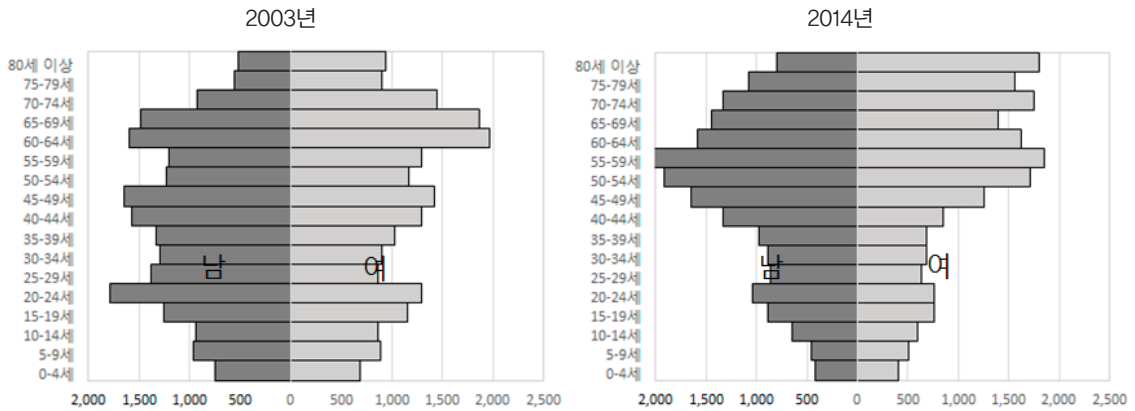


그림 3. 괴산군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자료: 증평군 통계 연보(2004년), 2014년 인구는 증평군 홈페이지(2014.12.31 기준)

역의 인구는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괴산군과 증평군이 분리된 해인 2003년을 기준으로 하고, 2014년을 비교년도로 하여 두 지역의 인구 성장률과 성별·연령별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괴산군과 증평군의 인구 변화가 충청북도의 중심지인 청주시의 도청과 두 지역의 군청과의 최단거리<sup>4)</sup>가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충북 도청과 괴산군청과의 거리는 42.1km이고, 증평군청과의 거리는 20.4km이다.

(1) 괴산군

괴산군은 2003년 40,411명, 2014년은 38,351명으로 5.1%(2,060명) 감소하였다(표 3). 괴산군은 충청북도 도청소재지인 청주시와의 거리가 42.1km로 증평군보다 멀고, 2014년의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임야와 농지를 합하면 90.5%로 전통적인 농촌에 해당된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청주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약하며 정주 기반이 약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003년 괴산군의 성별 비중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485명이 많아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보면 유소년층(0-14세)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청장년층(15-64세)에서는 남초 현상, 노년층(65세이상)<sup>5)</sup>에서 여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괴산군의 유소년층은 12.6%(5,086명), 청장년층에서 남자는

69.9%(14,300명), 여자는 62%(12,375명)로 7.9% 차이가 난다. 노년층은 21.4%이고 여초 현상을 보이고 있다(표 3). 괴산군의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는 전통적인 농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3).

괴산군의 2014년 인구는 2003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은 각각 4.7%, 3% 감소하였으나, 노년층은 7.7% 증가하여 29.1%로 초고령화 사회<sup>6)</sup>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전통적인 농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 대비 2014년의 괴산군의 인구는 감소하였고,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에서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이 감소하였으나 노년층은 증가하였으며, 노년층 비율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괴산군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증평군

증평군의 2003년 인구는 31,310명, 2014년 인구는 34,771명으로 11.1%(3,461명) 증가하였다(표 4). 청주시와의 거리는 20.1km로 괴산군보다 가까운 증평군은 임야를 포함하면 79.1%, 대지 등 도시적 토지이용을 하는 곳도 8.6%로 괴산군(4.2%)보다 높다.

증평군의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의 비중 변화를 보면, 2003년에는 전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390



표 4. 증평군의 인구 및 성별·연령별 인구 변화

구분	2003년			2014년		
	남(명, %)	여(명, %)	계(명, %)	남(명, %)	여(명, %)	계(명, %)
0~14세	3,310(20.9%)	3,158(20.4%)	6,468(20.6%)	2,807(15.7%)	2,666(15.7%)	5,473(15.8%)
15~64세	11,328(71.5%)	10,297(66.6%)	21,625(69.1%)	12,988(72.9%)	11,358(67.0%)	24,346(70.0%)
65세 이상	1,212(7.6%)	2,005(13%)	3,217(10.3%)	2,026(11.4%)	2,926(17.3%)	4,952(14.2%)
계	15,850(50.6)	15,460(49.4)	31,310	17,821(51.3)	16,950(48.7)	34,771

자료: 증평군 통계 연보(2004년), 2014년 인구는 증평군 홈페이지(2014.12.31 기준)

명이 많아 괴산군과 마찬가지로 차이가 미미하다. 유소년층의 성별 차이는 거의 없고, 청장년층은 남초, 노년층에서는 괴산군과 마찬가지로 여초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 분포에서는 괴산군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증평군의 2003년 유소년층은 20.6%(6,468명), 청장년층은 69.1%(21,625명)로 괴산군보다 높다. 그러나 노년층은 10.3%(3,217명)로 괴산군보다 낮다.

증평군은 2003년 대비 2014년의 인구는 증가하였고, 유소년층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은 증가하여 괴산군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03년 대비 유소년층의 비율은 4.8% 감소하였으나, 청장년층 0.9%, 노년층은 3.9% 증가하였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나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증평군은 괴산군과는 달리 도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

는 인구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4).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증평군의 인구는 증가하였고, 유소년층은 감소, 청장년층과 노년층은 증가하고 있어 청주시와 가까운 도시의 성격을 지닌 지역이라 할 수 있다.

(3) 괴산군과 증평군의 통근·통학 인구

2010년의 괴산군과 증평군의 통근·통학 인구를 보면(표 5), 괴산군은 통근·통학하는 19,413명 중 17,882명(92.1%)은 같은 군내에서, 1,504명(7.8%)은 다른 지역으로 통근·통학을 한다. 반면에 증평군은 18,014명 중 12,453명(69.1%)은 같은 군내에서, 5,531명(30.7%)은 다른 지역으로 통근·통학한다.

따라서 증평군은 괴산군에 비해 다른 지역으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은 증평군이 괴산군보다 충청북도에서 일자리와 고등학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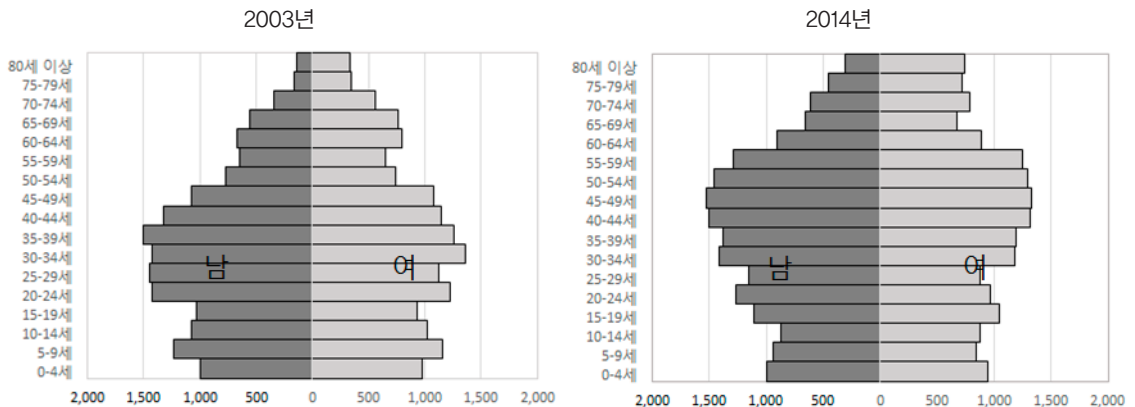


그림 4. 증평군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자료: 증평군 통계 연보(2004년), 2014년 인구는 증평군 홈페이지(2014.12.31 기준)

표 5. 괴산군과 증평군의 통근·통학 인구(2010년)

구분		괴산군	증평군
12세 이상 인구		28,595명	26,432명
미 통근·통학		9,182명	8,418명
통 근 · 통 학	같은 군내	17,882명	12,453명
	다른 시·군	1,267명	5,110명
	다른 시·도	237명	421명
	통근·통학지 미상	27명	30명
계		19,413명	18,014명

자료: 괴산군, 증평군 통계연보(2011년)

가장 많은 청주시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평 지역은 청주시의 위성도시의 성격을 지닌 지역이라 볼 수 있다.

## 2) 지가 변화

지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괴산군과 증평군이 분리된 직후인 2004년과 2015년의 지역별 최고지가의 상승률을 살펴 보았다. 2004년 괴산군(1,500,000원)과 증평군(2,200,000원)의 최고지가 차이는 700,000원이다. 2015년 증평군의 최고지가는 2,430,000원으로 2004년 대비 10.5% 상승하였으며, 괴산군의 최고지가는 1,520,000원으로 2004년에 비해 1.3% 상승하여, 두 지역 간의 최고지가 차이는 910,000원으로 2004년에 비해 차이가 더 커졌다(표 6).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괴산군의 인구는 감소한 반면, 증평군의 인구는 증가하였다. 둘째, 토지 이용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괴산군에 비해 증평군의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

표 6. 괴산군과 증평군의 최고지가 변화  
단위: 원/㎡

구분	2004년	2015년	지가 증가율
괴산군	1,500,000	1,520,000	1.3%
증평군	2,200,000	2,430,000	10.5%

자료: 2004, 2015년 표준지 공시지가

고 있다. 셋째, 충청북도의 중심지인 청주시와의 거리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이다. 청주시와 증평군 사이에는 자동차 전용도로<sup>7)</sup>가 건설되어 있어 청주와의 시간 거리가 더욱 단축되었다.

## 5. 괴산군과 증평군의 산업별 종사자 변화

괴산군의 면적은 842.4km<sup>2</sup>, 증평군은 81.8km<sup>2</sup>로 괴산군이 10배 이상 넓다. Lineberry(1970)는 행정구역의 규모가 작으면 지방자치에 지역 주민 참여도 쉽고, 지방공공재의 공급 수준을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공급 비용의 공정한 분배도 가능하다고 보았고, Tiebout(1965, 1972)와 Oates(1972)도 작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행정구역의 규모는 지역 개발 정책 수립 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980년대에 지역 생활권<sup>8)</sup>을 설정하여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균형개발을 위해 각 지역의 잠재력을 살리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괴산군과 증평군은 농촌도시 생활권에 해당한다. 농촌도시 생활권은 읍급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생활권으로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해 중심도시의 접근성 향상과 취업 기회 및 교육시설의 확충에 치중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계화 영농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에 적합한 산업 유치,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확충 등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농촌중심도시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고,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기본 복지 시설을 설치하고,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노선 버스 확대, 도로 건설 등에 주력해야 한다(김용웅 등, 2003, 538).

괴산군과 증평군은 농촌중심도시 생활권 지역으로 규모와 지역별 특성을 살린 개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발굴하고, 도시 수준의 생활환경 시설을 제공하고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춘 지역

사회의 경제적 거점지역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

1970년대 원유 파동과 그에 따른 세계의 경기 침체로 인한 탈공업화로 인해 1, 2차 산업은 감소하고, 3차 산업은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조업은 넓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가가 싸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3차 산업은 중심성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나 도시의 중심에 입지하고 있다(Hartson, 1980).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소득 증가, 노령화 사회 및 복지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인한 공공부문의 역할 증가 및 서비스 수요 증가, 기업을 위한 서비스 수요 증가 때문이다(Bryson et al., 2004).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은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생산자 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역에서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은 종사자가 근무하는 업종은 도소매업이고, 다음은 숙박·음식점업이다(이희연, 2014, 524-526). 지역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건이 변하면 지역의 특성도 변할 것이다. 행정구역이 분리된 괴산군은 행정구역의 축소 및 인구 감소가 이루어졌고, 증평군은 작지만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분리·독립하면서 인구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괴산군과 증평군의 2004년과 2013년 산업대분류별 사업체<sup>9)</sup>의 지역별 종사자수와 입지 계수를 비교하여 괴산군과 증평군의 산업별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1) 2004년 괴산군과 증평군의 산업 특성 비교

2004년 괴산군 산업별 종사자 중에서 제조업 종사자(31%)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은 숙박·음식점업(13.2%), 도매·소매업(11.3%) 순이다. 괴산군에서 입지계수 1 이상으로 특화된 산업은 9개이고, 가장 높은 업종은 농업·임업·어업(4.63)이고, 다음은 광업(2.65)이며,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인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2.46), 통신업(1.61),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1.26), 숙박 및 음식점업(1.1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9)가 특화되어 있다(표 7).

2004년 증평군의 종사자를 보면, 괴산군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종사자(26.9%)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 도매·소매업(16.5%), 숙박·음식점업(12.6%), 교육 서비스업(10.3%) 순으로 특화 정도가 높아 괴산군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에서 종사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도소매업이고, 다음은 숙박·음식점업이다. 증평군에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순이지만, 괴산군은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순으로 증평군과 다르다. 이것은 괴산군에 유명한 관광지가 많이 있어 숙박 시설이 많기 때문이다. 증평군에서 특화된 산업은 10개로 괴산군보다 1개가 많다. 입지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농업·임업·어업(2.67)이지만, 괴산군에 비해 낮은 편이다.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1.41), 교육서비스업과 광업(1.21),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1.18), 도매·소매업(1.13), 숙박·음식점업(1.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7).

종합적으로 괴산군과 증평군의 산업별 종사자 비중과 특화 정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괴산군과

표 7. 2004년 괴산군, 증평군 산업별 종사자 및 입지계수

구분	2004년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군	
	종사자수(명,%)	종사자수(명,%)	입지계수	종사자수(명,%)	입지계수
농업·임업·어업	1,187(0.3)	108(1.2)	<b>4.63</b>	61(0.7)	<b>2.67</b>
광업	1,076(0.2)	56(0.6)	<b>2.65</b>	25(0.3)	<b>1.21</b>
제조업	119,892(27.3)	2,677(31.0)	<b>1.14</b>	2,274(26.9)	0.99

신영재

전기·가스·수도 사업	1,927(0.5)	24(0.3)	0.63	40(0.5)	<b>1.08</b>
건설업	26,684(6.1)	308(3.6)	0.59	238(2.8)	0.46
도매·소매업	64,140(14.6)	981(11.3)	0.78	1,396(16.5)	<b>1.13</b>
숙박·음식점업	50,690(11.5)	1,142(13.2)	<b>1.15</b>	1,064(12.6)	<b>1.09</b>
운수업	22,483(5.1)	195(2.3)	0.44	338(4.0)	0.78
통신업	3,258(0.7)	103(1.2)	<b>1.61</b>	65(0.8)	<b>1.04</b>
금융·보험업	15,309(3.5)	305(3.5)	<b>1.01</b>	305(3.6)	<b>1.04</b>
부동산업·임대업	8,840(2.0)	22(0.3)	0.13	154(1.8)	0.91
사업서비스업	16,529(3.8)	54(0.6)	0.17	129(1.5)	0.41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17,802(4.0)	860(9.9)	<b>2.46</b>	481(5.7)	<b>1.41</b>
교육 서비스업	37,532(8.5)	717(8.3)	0.97	872(10.3)	<b>1.21</b>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7,747(4.0)	381(4.4)	<b>1.09</b>	288(3.4)	0.84
오락·문화·운동 관련 산업	9,628(2.2)	93(1.1)	0.49	153(1.8)	0.83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25,210(5.7)	627(7.2)	<b>1.26</b>	574(6.8)	<b>1.18</b>
계	439,934	8,653		8,457	

자료: 2004 기준 충청북도 사업체 조사 보고서

표 8. 2013년 괴산군, 증평군 산업 대분류별 종사자 및 입지계수

구분	2013년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군	
	종사자수(명,%)	종사자수(명,%)	입지계수	종사자수(명,%)	입지계수
농업·임업·어업	2,183(0.4)	152(1.3)	3.41	45(0.4)	1.09
광업	737(0.1)	40(0.3)	2.66	-	-
제조업	166,728(28.2)	3,316(27.5)	0.97	3,614(32.4)	1.15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2,107(0.4)	23(0.2)	0.54	57(0.5)	1.43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환경복원업	3,594(0.6)	118(1.0)	1.61	81(0.7)	1.19
건설업	31,624(5.3)	826(6.8)	1.28	378(3.4)	0.63
도매·소매업	74,916(12.7)	1,374(11.4)	0.90	1,615(14.5)	1.14
숙박·음식점업	61,599(10.4)	1,648(13.7)	1.31	1,267(11.4)	1.09
운수업	26,102(4.4)	346(2.9)	0.65	374(3.4)	0.76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5,853(1.0)	99(0.8)	0.83	77(0.7)	0.70
금융·보험업	16,245(2.7)	264(2.2)	0.80	259(2.3)	0.85
부동산업·임대업	11,665(2.0)	89(0.7)	0.37	239(2.1)	1.09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3,458(2.3)	149(1.2)	0.54	80(0.7)	0.3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20,990(3.5)	85(0.7)	0.20	185(1.7)	0.47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25,981(4.4)	944(7.8)	1.78	477(4.3)	0.97
교육 서비스업	47,119(8.0)	895(7.4)	0.93	931(8.3)	1.0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0,055(6.8)	902(7.5)	1.10	658(5.9)	0.87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11,370(1.9)	107(0.9)	0.46	214(1.9)	1.00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29,183(4.9)	691(5.7)	1.16	606(5.4)	1.10
계	591,509	12,068		11,157	

자료: 2013 기준 충청북도 사업체 조사 보고서

증평군에서 특화 정도가 높은 산업은 1차인 농업·임업·어업과 광업이지만, 괴산군의 특화 정도가 더 높다. 제조업은 괴산군(1.14)에서는 특화되어 있지만, 증평군(0.99)에서는 특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괴산군에서는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이 특화되어 있는데, 이는 괴산군이 1읍·10개면으로 이루어져 증평군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증평군은 1읍·1면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지역이지만, 괴산군 사리면과 청안면, 청주시 북이면, 진천군 초평면 등 다른 행정구역의 주민들이 증평군을 상권으로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이재원, 2005). 따라서 교육 서비스업과 도매·소매업(1.13)에서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2) 2013년 괴산군과 증평군의 산업 특성 비교

괴산군의 2013년 전체 종사자는 12,068명으로 2004년 대비 39.5%(3,415명) 증가하였다(표 8).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27.5%로 가장 높으나, 2004년 대비 줄었다. 다음은 숙박·음식점업(13.7%), 도매·소매업(11.4%) 순으로, 2004년 대비 순위 변화는 없다.

2004년 대비 2013년 종사자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7.8%)과 교육 서비스업(7.4%)은 감소,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7.5%)과 건설업(6.8%), 운수업(2.9%)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생산자 관련 서비스업인 금융업, 부동산업·임대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비중은 여전히 낮다. 이는 괴산군이 전형적인 농촌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2013년 괴산군에서 입지계수 1 이상인 산업은 8개로 2004년에 비해 줄었다. 입지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농업·임업·어업(3.41)으로, 괴산군은 고추, 찰옥수수, 사과, 배추 등 친환경 특산물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광업(2.6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1.78),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1.61), 숙박·음식점업(1.31), 건설업(1.28),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1.16),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0) 등 1차산업과 소비

자 관련 서비스업에서 특화되었다. 괴산군은 농산물과 함께 화양계곡, 선유동 계곡, 쌍곡 계곡, 산막이 옛길 등 자연과 어우러진 관광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숙박·음식점업의 입지계수가 높아졌다.

증평군의 2004년 대비 종사자는 2,700명이 증가하였고, 제조업 종사자(32.4%)가 가장 많고, 입지계수도 1 이상으로 특화되면서 공업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도매·소매업(14.5%), 숙박·음식점업(11.4%), 교육서비스업(8.3%),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5.9%),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5.4%) 순으로 괴산군과 다른 순위를 보이고 있다(표 8).

2013년 증평군에서 입지계수 1 이상인 산업은 10개로 2004년과 같으며 괴산군보다 2개가 많다. 입지계수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1.43),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환경복원업(1.19), 제조업(1.15) 순으로 높다. 제조업이 증평군의 특화 산업이 된 것은 증평군이 괴산군에서 분리되면서 자체적으로 공업단지<sup>10)</sup>를 유치하고 개발하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다음은 도매·소매업(1.14),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1.10), 숙박·음식점업(1.09), 부동산업·임대업(1.09), 교육서비스업(1.05) 순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증평군은 괴산군 사리면과 청안면, 진천군 초평면의 일부 지역과 청주시 북이면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권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증평군의 일부 주민과 고등학교 학생들은 청주시를 통근·통학권으로 하고 있는 도시적 성격을 지닌 지역이다.

결론적으로 2013년 괴산군은 1차 산업 및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이 발달하였고, 증평군은 제조업과 생산자 관련 서비스업과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이 고르게 발달해 있다. 이와 같이 이유는 괴산군은 면적도 넓고 1읍·10개 면의 하위 단위의 행정구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이다. 증평군은 면적도 좁고, 1읍·1면의 소규모 행정구역이고, 다른 행정구역의 주민들까지 증평군을 상권으로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 6. 괴산군과 증평군의 세부 산업 비교

본 장에서는 2013년 기준 괴산군과 증평군의 산업을 세부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표 9, 10). 비교 산업은 괴산군이나 증평군에서 입지계수가 1 이상이거나, 전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이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9. 괴산군과 증평군의 1, 2차 세부 산업 종사자 비교

(단위: 명)

구분		괴산군	증평군
농업	작물재배법	70	
	축산업	37	39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서비스업	35	3
계		107	39
광업	비금속광물광업(토사석광업)	40	
정공업	식료품 제조업	857	814
	음료 제조업	46	4
	섬유제품 제조업	243	3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5	3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01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4	4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1	5
	가구 제조업	2	13
	기타 제품 제조업	17	16
	계	1,306	987
중화학공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73	6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09	298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688	73
	1차 금속 제조업	38	161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83	7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42	2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27	5
	계	1,768	701
첨단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115	1,50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24
	전기 장비 제조업	111	171
	기타기계 및 제조업	16	29
	계	242	1,926

자료: 2013 기준 충청북도 사업체 조사 보고서

## 1) 농업 및 광업, 제조업

괴산군과 증평군의 농업, 광업, 제조업의 산업별 종사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9). 2013년 괴산군에서 특화 정도가 가장 높은 농업 종사자 142명 중에서 70명이 작물재배법에 종사하고 있다. 괴산군은 고추, 찰옥수수, 사과, 배추 등 친환경 특산물로 유명한 지역이다. 다음으로 높은 광업에서는 비금속광물광업 중 토사석광업 종사자가 가장 많다.

2013년 제조업 종사자를 보면, 괴산군에서는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 종사자, 증평군에서는 첨단 관련 산업 종사자가 많다. 괴산군의 경공업 종사자는 1,306

표 10. 괴산군과 증평군의 3차 산업 비교

(단위: 명)

구분		괴산군	증평군
도매·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9	54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6	393
	소매업; 자동차 제외	829	1,168
계		1,374	1,615
숙박·음식점업	숙박업	413	121
	음식점업 및 주점업	1,235	1,146
계		1,648	1,267
부동산업·임대업	부동산업	86	222
	임대업; 부동산 제외	3	17
	계	89	23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	20	21
	사업지원 서비스업	65	164
	계	85	185
교육 서비스업	초·중·고 교육기관	784	691
	일반교습학원	31	127
	기타교육기관	80	113
	계	895	931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365	221
	사회복지 서비스업	537	437
계		902	658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304	156
	수리업	124	161
	기타개인 서비스업	263	289
	계	1,797	1,589

자료: 2013 기준 충청북도 사업체 조사 보고서

명으로 식료품 제조업 종사자(875명)가 가장 많고, 섬유제품 제조업(243명)이 많고, 증평군의 경공업 종사자는 987명으로 식료품 제조업 종사자가 814명으로 가장 많다. 따라서 괴산군과 증평군에서 경공업은 식료품 제조업이 가장 발달해 있다.

중화학공업 역시 괴산군이 증평군보다 더 발달하였다. 괴산군의 중화학공업 종사자는 1,768명으로 증평군(701명)보다 2배 이상 많고,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688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73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42명) 등이 발달하였고, 증평군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98명), 1차 금속 제조업(161명)이 발달하였다.

첨단 관련 산업 종사자는 증평군(1,926명)이 괴산군(242명)보다 8배 정도 많다. 증평군은 괴산군에서 분리된 지 10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평군에서 자체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타난 결과이다. 첨단 관련 산업 중 증평군에서 종사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502명)과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24명)이다.

## 2) 3차 산업

2013년 지역별 3차 산업 종사자를 보면(표 10), 도매·소매업 종사자는 괴산군(1,374명)보다는 증평군(1,615명)이 많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괴산군은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증평군은 소매업(자동차 제외) 종사자가 더 많다. 괴산군은 증평군보다 행정구역이 넓고, 행정지역도 많아 도매업이 발달했고, 증평군은 좁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도매업이 발달한 청주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소매업이 발달하였다.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는 괴산군(1,648명)이 증평군(1,267명)보다 많다. 숙박업 종사자는 괴산군(413명)이 증평군(121명)보다 3배 이상 많고, 음식점업 및 주점업 종사자는 비슷하다. 이는 유명한 관광지가 괴산군에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업은 증평군(239명)이 괴산군(89명)보다 종사자가 많다. 자가 분포에서 살펴보았듯이 증평군이 괴산군보다 최고지가 비싸고, 청주와의 거리도 가깝다. 또한 인구밀

도도 높기 때문이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역시 증평군의 종사자가 더 많다. 이것 역시 부동산 및 임대업과 같은 이유라 할 수 있다.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역시 증평군(931명)이 괴산군(895명)보다 많다. 증평군은 고등학생들이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로 통학할 수 있는 통학권이고, 괴산군은 청주로 통학하기는 다소 먼 거리이기 때문이다. 초·중·고 교육 기관 종사자는 괴산군(784명)이 증평군(691명)보다 많지만, 일반교습학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종사자는 증평군이 더 많다. 이는 괴산군의 유소년층(3,034명)보다 증평군(5,473명)이 많기 때문이다.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종사자는 괴산군이 증평군보다 많다. 이는 괴산군의 면적이 넓고 예하의 행정지역과 기관이 많기 때문이다.

## 7. 요약 및 결론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은 2003년에 행정구역이 분리된 지역이다. 괴산군은 1읍 10개면, 증평군은 1읍 1면으로 이루어졌다. 괴산군과 증평군은 농촌중심 도시이지만, 괴산군은 농촌, 증평군은 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괴산군은 충청북도 도청소재지이면서 인구가 가장 많은 청주시와의 거리가 42.1 km, 증평군은 20.4km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04년 대비 2014년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괴산군은 1.6%, 증평군은 3.3%가 용도 변경되었고, 특히 증평군은 2004년 대비 공장 용지가 1.1% 증가하여 공장이 많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증평군은 괴산군에 비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분리 이후 괴산군과 증평군의 인구와 지가, 입지 계수를 통한 산업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대비 2014년 괴산군의 인구는 감소하였고, 증평군은 증가하였으며, 괴산군은 전형적인 농촌, 증평군은 도시 성격을 지닌 지역이다. 괴산군은 농촌 지역으로,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은 감소, 노년층은 증가하는 농

촌형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증평군은 유소년층은 감소하고, 청장년층과 노년층은 증가하는 도시형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 통근·통학 비율 또한 증평군이 높다. 따라서 인구 변화 및 피라미드 구조, 통근·통학 비율을 볼 때, 괴산군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 증평군은 도시적 성격을 지닌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둘째, 2004년과 2015년의 최고지가는 괴산군보다 증평군이 비싸고, 2004년 대비 최고지가의 상승률도 증평군이 높다. 2004년 대비 2015년 괴산군의 최고지가는 1.3%(1,500,000원→1,520,000원) 올랐으며, 증평군은 10.5%(2,200,000원→2,430,000원)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괴산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증평군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괴산군은 농촌, 증평군은 도시 성격을 지닌 지역이다.

셋째, 2004년 괴산군과 증평군에서 공통으로 특화된 산업은 농업·임업·어업과 광업,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이고, 특화 정도는 괴산군이 높다. 두 지역에서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제조업이지만, 입지계수는 괴산군(1.14)이 증평군(0.99)보다 높다. 넷째, 2013년 특화 정도에서 괴산군은 농업 및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이 높고, 증평군은 제조업과 생산자 관련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2004년과는 다른 결과이다. 괴산군은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증평군은 교육 서비스업과 도매·소매업 등에서 우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2013년 세부 산업에서는 괴산군은 작물 재배업과 토사석광업,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과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숙박업 등 소비자 관련 산업이 발달하였고, 증평군에서는 첨단 관련 산업인 전기·전자·통신 공업과 생산자 관련 서비스업이 발달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괴산군과 증평군의 지역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괴산군은 증평군에 비해 면적이 넓고 1읍·10개 면의 행정구역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이 발달하였고, 증평군은 소규모의 행정구역이지만, 괴산군에 비해 접근성과 중심성이 높고, 다른 행정구역의 주민들이 증평군을 상권으로 이용하고 있고, 청주와의 거리

가 가까워 통근·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괴산군과 증평군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괴산군은 한강 수계인 달천의 풍부한 수량을 이용하여 수산식품 산업거점 단지과 내수면 양식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내수면 양식 생산과 수산물 판매, 관광 산업 등이 어우러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증평군은 청주시와 자동차 전용도로가 건설되어 시간거리가 단축되었다. 이로 인해 건설 중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제2의 증평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었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괴산군과 증평군은 각각의 지역이 지니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개발하면, 인구 및 지가, 산업 구조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 주

- 1) 괴산군에서는 인구 등에서 괴산군의 절반을 차지하는 증평 지역의 독립이 괴산군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증평군 설립, 괴산은 어찌란 말인가?, 우리는 증평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 괴산군 분군되면 5년 후에는 1만 명도 안 남는다, 국회의원은 각성하라 시대의 역행이다, 괴산군민 다 함께 총궐기하자” 등의 구호를 앞세워 증평군의 분리·독립이 괴산군을 3만이 조금 넘는 기초자치단체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증평군 설치 백서).
- 2) 괴산군은 괴산읍, 감물면, 문광면, 불정면, 사리면, 소수면, 연풍면, 장안면, 청안면, 청천면, 칠성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 3) 지방자치법 106조(출장소)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증평출장소는 괴산군청과 원거리이기 때문에, 원격지 주민의 민원 편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졌다. 출장소는 고유 사무는 거의 없고, 주로 행정 협약을 통해 위임·위탁을 받아 실질적으로 시·군과 같이 독자적으로 종합 행정을 수행하는 일반 행정기관이다. 증평출장소는 충청북도 출장소로서 도 업무는 위임사무였고, 괴산군과 증평읍·도안면 업무는 위탁사무였다. 이로 인해 증평출장소장 직인은 없고, ‘괴산군 수전용인’ 또는 ‘증평읍장(도안면장)전용인’을 사용해야 했다. 또 증평출장소 지역 내에 있는 괴산군의 군유재산은 매각할 경우, 증평출장소장의 동의를 얻도록 행정협약서를 괴산군과 체결하였다(증평군 설치 백서).



- 4) 충청북도 중심지인 청주시에 있는 도청과 군의 행정 중심지인 군청까지의 최단거리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거리이고, 거리 계산은 <http://map.daum.net/>에서 하였음을 밝혀둔다.
- 5) 인구지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연령별 구성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연령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연령 구분은 보통 0-14세는 유소년 인구(유소년층), 15-64세는 청장년층(생산연령 인구), 65세 이상은 노년인구(노년층)으로 구분한다(한주성, 2007, 160).
- 6)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14% 이면 고령화 사회, 14-20% 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한주성, 2007, 168-170).
- 7) 청주~증평 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2013년 12월30일 오후3시에 개통되었다. 청주~증평 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으로 증평에서 청주와의 통행 시간이 30분에서 20분 이내로 단축되었다.
- 8) 지역생활권은 모든 주민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취업, 교육, 사회·문화·복지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족적인 공간 단위로, 취업 기회와 서비스 기반을 갖춘 도시와 이를 이용하는 주변 배후지로 구성된다. 지역생활권 설정은 지역 내 생산 기반의 확충과 취업기회의 확대를 통한 인구의 지방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생활권 개발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권별로 중소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둘째, 생활권 내 주민에게 문화적이고 편리한 생활여건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중심도시의 중심성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생활권 조성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 내 접근도의 개선에 치중한다. 넷째, 지역생활권의 개발은 단순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개선이나 물적 기반의 확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전통 문화의 창달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보전·계승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귀속감을 높이도록 한다(김용웅 등, 2003, 534).
- 9) 산업체 대분류에서 2004 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는 2000년에 시행된 개정 기준, 2013 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는 2009년에 개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기 때문에 업종에 차이가 있다.
- 10) 증평군에는 증평산업단지, 증평 2, 3산업단지가 증평군으로 분리·독립된 이후에 건설되고 있다. 증평군청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지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많은 혜택 약속, 입지하는 업체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증평산업단지는 2009년 완공되어 100% 입주하여 가동중에 있다.

## 참고문헌

- 경기개발연구원, 1997, 경기도 도·농 복합시의 행정수요 분석과 기능재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평택시를 중심으로.
- 국토해양부·한국감정평가협회, 2004년,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요령.
- 김대원, 1999, "통합시의 생산성 증대 효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33(3), 327-344.
- 김동훈·정진현, 1996,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의 효과 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7, 235-277.
- 김석태, 이영조, 2004, "광역시·도 통합론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광역거버넌스의 가능성," 한국행정논집, 16(4), 691-711.
- 김안제, 1979, 환경과 국토, 박영사.
- 김용웅·차미숙·강현수, 2003, 지역발전론, 한올아카데미.
- 김재홍, 2000,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정부의 효율성 변화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9(2), 47-62.
- 박종관, 1999,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종관·조석주, 2001, "시·군 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 정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3), 57-77.
- 박희정, 1994, "시·군 통합 이후의 지역발전과제," 지방행정, 43, 20-68.
- 배인명, 2000, "시·군 통합의 성과 평가: 재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9(1), 139-161.
- 손승호, 2013, "인구 규모의 변화를 통해 본 도농통합시의 차별적 성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1) 통권 38, 85-98.
- 손재식, 1991, 한국지방자치의 진통, 박영사.
- 신영재, 1999, 통합시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도 평택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영재, 2013, "평택항 개항에 따른 배후지역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3), 416-435.
- 신용철, 2014, "시멘트 공업지역의 공간 변화: 충북 단양군 매포읍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1), 59-79.
- 유성중 2000, "광양제철소의 입지와 지역경제의 변화,"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3(2), 63-80.
- 이규환, 1994, “시·군 통합의 도시정책,” 도시문제, 313, 24-38.
- 이시원·민병익, 2005, “시·군 통합의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간 관계유형 분석,” 지방정부학회보, 9(4), 367-388.
- 이정록, 2000, “광양만권의 공업화와 지역경제의 변화,” 국토계획, 35(2), 175-186.
- 이정록, 이철, 나주몽, 2015,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여수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2), 137-151.
- 이재원, 2005, 행정구역과 생활권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충기, 2003, “월드컵 외국인 방문객의 실제 관광지출액 추정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26(4), 11-26.
- 이희연, 2014, 경제지리학, 법문사.
- 임석희, 1994, “한국행정구역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의 방향,” 대한지리학회지, 53, 65-83.
- 정세욱, 1995, 지방행정학, 법문사.
- 정성호, 2006, “폐광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개발: 태백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7(2), 219-249.
- 최재승, 1999, “시군통합의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 경기대학교 인문사회과학논집, 43(1), 335-354.
- 최준호, 2001, “수면 위로 떠오른 광역시·도 통합문제,” 지방자치, 149, 24-29.
- 최홍석·정재진, 2005, “도농통합의 재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19(4), 145-172.
- 한주성, 2007, 인구지리학, 한올아카데미.
- 홍준현, 1997, “시·군 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의 효과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8(2), 59-90.
- 홍준현, 2005, “시·군 통합이 지역 내 및 지역 간 균형성장에 미친 효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299-324.
- 괴산군, 증평군 홈페이지.
- 충청일보, 1963년 1월 24일자.
- 희망21증평협의회, 2008, 증평군 설치백서.
- 2004년 괴산군 통계연보.
- 2004년 증평군 통계연보.
- 2004 기준 충청북도 사업체 조사보고서.
- 2013 기준 충청북도 사업체 조사보고서.
- Alonso, W., 1975, The Economics of Urban Size, J. Fridman & W. Alonso, eds., *Regional Policy: Readings in Theory and Applications*, The MIT Press, Cambridge, 437-439.
- Bryson, J., Daniels, P. and Warf, B., 2004, *Service Worlds. People, Organizations, Technologies*, Routledge, London.
- Burns, P. A., Hatch, J. A. and Mules, T. I., 1986, *The Adelaide Grand Prix: The Impact of a Special Event*, Center for South Australian Economic Studies, Adelaide.
- Chisholm, M., 1990, *Region in Recession, Restructuring and Resurgence?*, Unwin Hyman, London, 5-17.
- Crompton, J. I., 1995, Economic Impacts of Sports Facilities and Events: Eleven Sources of Misapplicatio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9(1), 14-35.
- Crompton, J. I. and Makay, S. L., 1994, Measuring the Economic Impacts of Festivals and Events: Some Myths, Misapplications and Ethical Dilemmas,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2(1), 33-43.
- Dwyer, L., Forsyth, P. and Spurr, R., 2004, Estimating Tourism's Economic Effects: New and Old Approaches, *Tourism Management*, 25(3), 307-317.
- Dwyer, L., Forsyth, P. and Spurr, R., 2005, Estimating the Impacts of Special Events on the Economy, *Journal of Travel Research*, 43(4), 351-359.
- Getz, D., 2005, *Event Management and Events Tourism* (2nd. ed.), Elmsford, Cognizand Communication Corporation, NY.
- Hartson, T., 1980, *Interpreting the city: An Urban Geography*, John Wile & Sons, New York.
- Horne, J. D. and Manzenreiter, W., 2004, Accounting for Mega-Events Forecast and Actual Impacts of the 2002 Football World Cup Finals on the Host Countries Japan/Korea,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39(2), 187-203.
- Kim, H. Y., Gursoy, D. and Lee, S., 2006, The impacts of the 2002 World Cup on South Korea: comparisons of pre-and post games, *Tourism Management*, 27(1), 86-96.
- Lineberry, Robert L., 1970, Reforming Metropolitan Governance: Requiemor Reality, *The Georgetown Law Journal*, 58, 676-678.

- Long, P. T. and Perdue, R., 1990, The Economic Impacts of Rural Festivals and Special Events: Assessing the Sparilla Distribution Expenditures, *Journal of Travel Reseach*, 28(4), 10-14.
- Oates, W. E., 1972, *Fiscal Federalism*, Harcourt Braco Javanovich, New York, 11-13.
- Smith, 1995, B. C., *Decentralization: The Territorial Dimension of the State*, George Allen & Unwin, London, 201-206.
- Swyngedouw, E. A., 1992, The Mammon Quest: 'Globalization' Interspatial Competition and the Monetary Order, the Construction of New Scales, in Dunford, M. and Kafkalas, G.(eds.),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Europe*, Belhaven Press, London, 39-67.
- Tiebout, C. M., 1965,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Oct.), 416-424.
- Tiebout, C. M., 1972,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in Edel, M. and Rothenberg, J(eds), *Readings in Urban Economics*, MacMillian Publishing Co, 513-523.
- Tyrrell, T. J. and Johnston, R. J., 2001,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ssessing Direct Economic Impacts of Tourist Events: Destinations, and Causes of Expenditures. *Journal of Travel Reseach*, 40(1), 94-101.
- Warnick, R. B., Bojanic, D. C. and Xu, F., 2015, Using a Trade Market Analysis Technique to Refine Measurements for Economic Impacts Analysis of Special Events, *Journal of Travel Reseach*, 54(1), 52-65.  
<http://map.daum.net/>
- 교신: 신영재, 05502,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24, 잠신고등학교(이메일: syj7161@hanmail.net)
- Correspondence: Yeong-Jae Shin, Jamsin High School 24 Jamsil-ro, Songpa-gu, Seoul 05502, Korea (e-mail: syj7161@hanmail.net)

최초투고일 2016. 2. 5  
수정일 2016. 3. 2  
최종접수일 2016. 6. 18